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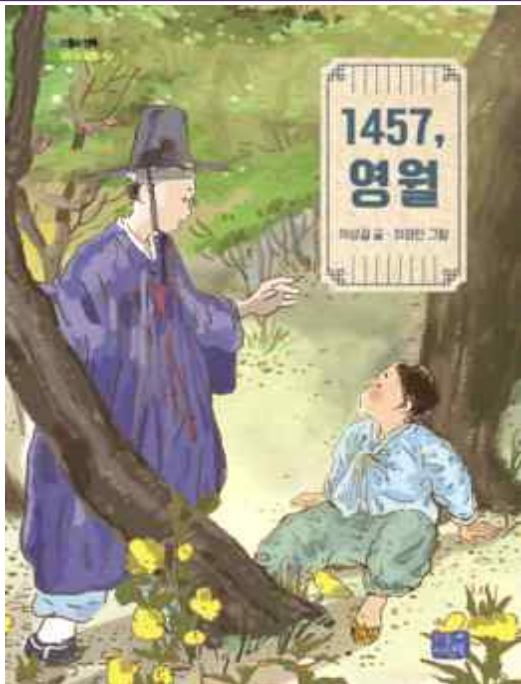
[1457, 영월]

<읽기 전 활동>

이상걸 글, 최정인 그림, 리틀씨앤톡

이름:

- 책의 표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어떤 상황일지 짐작하여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 '1457년 영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료를 검색해 보고 핵심어를 몇 가지 뽑아보세요.

#

#

#

#

#

#

- 지도에서 이 책의 주요 배경이 되는 '영월'과 '청령포'를 찾아서 자연환경이나 정보를 살펴보세요.

- 평소 역사 이야기나 역사 동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나는 역사 이야기나 역사 동화를 (좋아한다. 별로 안 좋아한다.) 왜냐하면,



[1457, 영월]

이상걸 글, 최정인 그림, 리틀씨앤톡

< 읽기 중 활동 >

이름:

- 단어의 뜻을 잘 알면 책의 내용을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역사 지식도 쌓고, 어휘력도 기르기 위해 단어의 뜻을 찾아 쓰고 익혀 봅시다.

단어	뜻
귀양	
영의정	
좌의정	
호장	
반역	
문무관	
승하	
대군	
사약	

- 임금은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있지만 그중에는 진심을 다해 왕을 충직하게 보필하는 충신도 있고, 간사하고 교활한 간신도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인물들 외에 조선시대 역사 이야기에서 유명한 간신과 충신의 이야기들을 좀 더 찾아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적어보세요.

	대표적인 간신	대표적인 충신
사건의 내용과 이름		
신하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생각한 것		

3. 상욱과 할아버지의 성격이 드러난 말과 행동을 2가지씩 찾아 정리해 보세요. 꼼꼼하게 살피며 읽어야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찾은 쪽수도 () 안에 넣어 표시해 주세요.

	상욱	상욱의 할아버지
말과 행동 1 ()		
짐작할 수 있는 성격 1		
말과 행동 2 ()		
짐작할 수 있는 성격 2		

4. 왕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어땠을 것 같나요? 다음 글을 읽고 단종의 입장이 되었다고 상상하여 일기를 써보세요.

“그렇다면 상왕 전하는 무사하신가?”

어른들은 누구보다 전하의 처치를 걱정했다.

“네! 지금은 무사하시지만 반역한 자들이 수양대군을 살해하고, 전하를 다시 왕으로 모시려 했기에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에 어느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역모에 가담한 우두머리를 그냥 둘 임금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42쪽)

1457년 월 일

5. 상욱의 할아버지는 조선의 제6대 임금인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그를 돌봐주고 시신을 수습한 호장 엄홍도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겨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엄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단종은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듬해 갑자기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게다가 단종의 시신은 강에 버려진 상태로 있었는데 이 시신을 건드리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왕의 어명이 있었다. 겁을 먹은 사람들은 아무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다. 이때 엄홍도만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를 지내려고 했다.

나는 상욱이 할아버지의 선택에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6. 만약 단종이 죽지 않고 유배지에서 풀려나 다시 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상상하여 적어보세요. 상욱의 가족과 관련된 일도 덧붙여서 상상해 보세요.

7. 이야기 중간중간 노루 사냥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덮에 걸린 노루를 풀어준 상욱과 친구들의 마음을 살피면 은혜를 갚은 동물 이야기들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를 갚은 동물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와 그 이유를 소개해 주세요.



8. 상욱의 할아버지는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왔을 때부터 손자인 상욱이 서당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십니다. 가족들이 헤어지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상욱에게 한 말에서 '가족 보다, 친구보다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부끄러운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너희에게 미안할 따름이구나. 하지만 너도 더 크면 알게 될 거란다. 때론 가족보다, 친구보다 중요한 일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네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 말을 하시고 할아버지는 급히 발걸음을 옮기셨다. (135쪽)

1) 가족이나 친구보다 중요한 일이란? :

2) 부끄러운 삶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9. '1947, 영월'이라는 제목에 대한 생각이 책을 읽기 전과 읽고 난 후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리고 제목을 바꾸어 본다면 어떻게 지어보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읽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제목에 대한 생각:

내가 제목을 지어본다면? 그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 :

10. 더 알아보고 싶거나 찾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1457, 영월]

<읽기 후 활동>

이상걸 글, 최정인 그림, 리틀씨앤톡

이름:

- 책을 다 읽은 소감을 나누어 봅시다. 나만의 별점을 매기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마음에 남았던 느낌과 생각을 중심으로 감상문을 적어보세요.

별점	☆ ☆ ☆ ☆ ☆
느낀 점과 생각 정리하기	

- 책 속에서 감동적인 문장, 내 마음에 들어온 문장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쪽수도 꼭 적어주세요.)

- 영월에 가서 찾아보면 좋은 문화 유적

: 청령포(단종어소, 관음송, 망향탑, 금표비), 관풍헌(자규루), 장릉(정자각, 배식단), 민충사 등



영월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면? - 영월관광문화재단 <https://www.ywcf.or.kr/>